

커지는 ‘햄버거병 공포’…혹시 나도?

여름철·10세 미만 환자 발병률 높아 주의
원인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 우선
익혀먹기·끓여먹기 등 위생적인 조리 중요



최근 패스트푸드점에서 덜 익힌 햄버거 패티를 먹은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단기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희귀질환이다. 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으로 인해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에 쌓이면서 발생한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집단 발병해 ‘햄버거병’이란 별칭이 붙었다. 고기를 잘 익히지 않고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하면 걸릴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1군 법정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으로 보고된 환자 443명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는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0~4세 161명(36.3%), 5~9세 68명(15.3%)으로 전체 환자의 51.7%가 10세 미만 유·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행된 경우는 443명 중 총 24명(5.4%)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0~4세 14명(58.3%), 5~9세 3명(12.5%) 10세 이상 7명(29.2%)이었다. 햄버거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큰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이 중요하다. △조리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엔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위생적인 조리를 위해 칼, 도마 소독하기 △도마는 생선·고기·채소용으로 분리해 사용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특히, 식사 전에 음식이 완전히 익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복통·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



햄버거병의 가장 큰 발병원인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육류 제품은 먹기 전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야채류는 깨끗한 물로 잘 씻어 먹는다.

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Q.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란?

A.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에 의해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Q. 증상은?

A. 설사가 가장 흔하며, 복통·발열·구토 등이 주로 나타난다. 증상은 5~7일간 지속된 후 대체로 호전된다. 증상이 없거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인한 사망까지 다양한 경과를 보인다.

Q. 어떻게 전파되나?

A.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감염된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다. 대부분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해 발생한다. 살균되지 않은 생우유, 오염된 채소나

주스, 마요네즈, 살라미, 소시지 등도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 분변에 오염된 호수나 수영장에서도 균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Q. 예방법은?

A.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육류 제품은 충분히 익혀 섭취한다. 날 것으로 섭취하는 야채류는 깨끗한 물로 잘 씻어 먹는다.

Q. 치료방법은?

A. 수분 공급 및 전해질 교정을 통한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사용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어, 항생제 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다. 항콜린제, 지사제 등도 사용하지 않는다.

●용혈성요독증후군

Q. 용혈성요독증후군이란?

A.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은 병원균의 독소 등에 의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병이다. 손상된 적혈구들이 콩팥의 여과 시스템에 끼여가쳐뭉쳐서 기능 손상을 초래한다. 미세혈관병증 용혈성빈혈, 혈소판감소증, 급성신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Q. 원인은?

A. 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나 세균성 이질균, 페렴구균 등 세균 감염, 콕사키에 바이러스 감염, 선천성 보체 결핍 등 유전성 발병 항암제, 경구 피임제 등 약제 복용,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등의 전신질환, 이식거부반응, 임신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Q. 치료는?

A. 주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며, 40~50% 정도는 투석 치료가 필요하다.

Q. 예후는?

A. 적절한 치료 시 회복 가능하다. 약 10% 미만은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며 치사율은 2~7%로 알려져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신임 이화의료원장 심봉석 교수 임명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이화의료원장에 심봉석 비뇨기과 교수가 임명됐다. 이대목동병원장으로는 정혜원 산부인과 교수가 선임됐다. 임기는 2017년 8월1일부터 각각 2년이다. 신임 심봉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한양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이대목동병원 기획실장과 이대목동병원장을 역임했다. 정혜원 신임 이대목동병원장은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1993년부터 이화여대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했다. 산부인과 과장과 QPS 센터장을 역임했다.

정용운 기자

인사

NH투자증권 <신임> ▽부장 △정보시스템 부 김주환 <전보> ▽부장 △IT품질기획부 윤우식 △정보보호부 김사경 △신사업전략부 정형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부고

◇박남환 씨 별세·병수 씨 병목 하나금융투자 재무기획실장 부친상=16일 광주역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9시 062-264-4444

◇손해옥 씨 별세·김기주(사업) 호주 전 하나증권 지점장 연주 이서중학교 교사 장주 그린버그 트라우리그 한국지사장 혜숙 씨 모친상=16일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9일 053-620-4241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일을 드러내어 칭찬함.

04.아름다움과 추함을 식별하는 안목.
07.기다리는 곳. 08.인어와 닭을 함께 넣어 끓인 국.
10.팅 빈 듯한 허전한 느낌. 12.끝없이 스며드는 시름.
15.대단히 고맙게 여기는 모양. ‘오지덕오’
16.조개의 껍데기. 18.무로 담근 일본식 찐지.
19.어떤 일이 아직 생기기 전에, 앞서서.

■ 퍼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날말을 모두 쪼개 다음 가, 나 칸의 글자를 차례로 이어 놓으면 여러 분이 잘 아시는 국가 이름이 됩니다.



건강검진 체험수기 응모하세요

건강보험공단 공모전 8월31일까지 접수

“건강검진 체험사례를 발굴 전파해 검진참여를 확대하고 검진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0회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일반·생애·영유아·암·학교학령 소년 건강검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계기로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생활을 실천한 사례 △공단 건강검진과 관련된 미담사례를 주제로 한다. 체험수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

w.nhis.or.kr)에 게시한 공모서식으로 3~4페이지 이내 또는 원고지 18~20매 분량으로 작성해야 한다. 누구나 응모 가능하고 7월17일부터 8월31일 18시까지 이메일(jeh@nhis.or.kr)이나 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9월29일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생애·영유아·암검진 부문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장려상(10명) 각 3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부문은 우수상(2명) 각 50만원, 장려상(5명) 각 3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정용운 기자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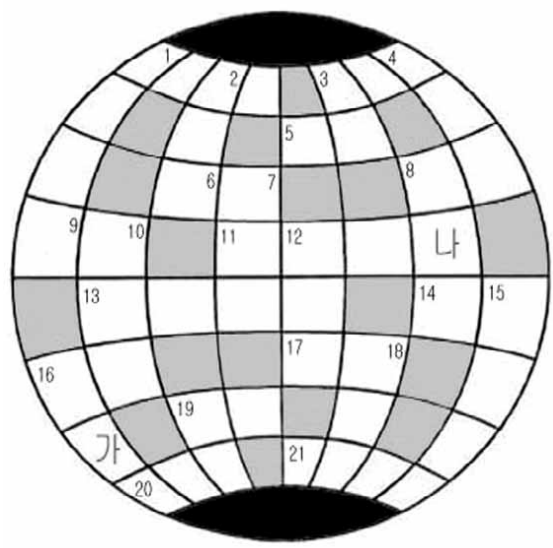
서남병원, 18일 대상포진 예방 건강강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7월18일 오후 2시 2층 이화홀에서 ‘찌릿한 통증, 이게 바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필수!’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활성화되어 신경을 따라 피 모양으로 피부 병변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특히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대상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포진은 초기 증상이 발열, 근육통 등 감기와 흡사해 방치하기 쉽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합병증 발생 등 위험이 높아져 평소 대상포진을 알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1566-6688. 정용운 기자

강주현의 퍼즐월드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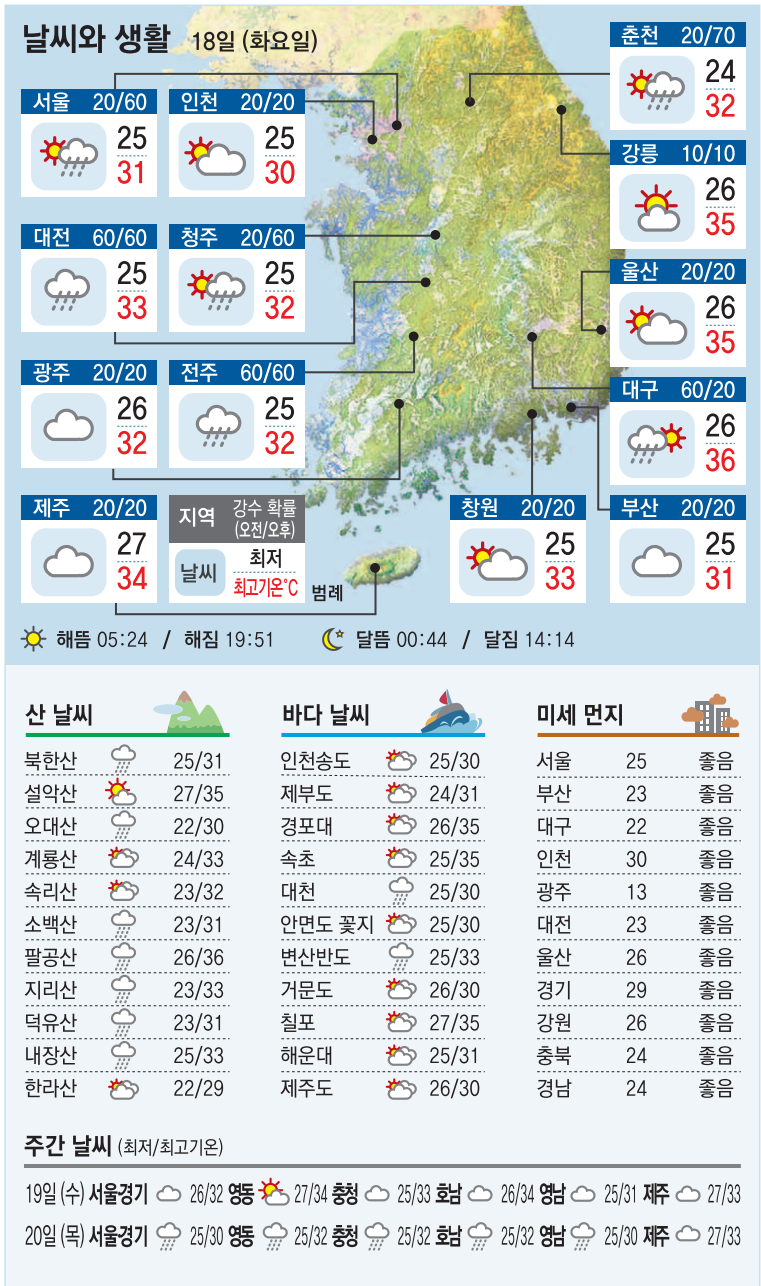


■ 가로 열쇠

01.크게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변함. ‘○경○색’
03.자부하는 마음. 05.푹이 좁은 작은 개울.
06.아주 크고 왕성한 08.임금의 얼굴.
09.목적을 이룸. 11.기이하고 빼어난 산. ‘기○수○’
13.대중없이 함부로 지껄이는 말. ‘○튼○리’
14.빛·세금 등을 온통 삼켜 줌.
16.높은 곳에서 내려다봄.
17.일을 처리해 나가는 솜씨와 피.
19.어지럽게 갈래가 져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
20.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처녀.
21.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함. ‘역○사○’

■ 세로 열쇠

01.크게 외쳐 꾸짖는 한마디의 소리. ‘○갈일○’
02.전에는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된 별. ‘○각○’ 03.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관련이 있는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18일(화요일) 음력: 윤 5월 25일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자존심으로 인한 마찰이다. 강한 자는 이득이지만, 약한 자는 당한다. 이성간의 금전관계를 조심하라. 길방:서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운세: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 부리지 말라. 오늘은 도화의 기운으로 자신의 능력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남에게 보여주려는 기운이 강하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의 운기이다.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날이다. 길방:북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날이다. 일단 본인이 행하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육하고 일어나는 것이다. 매사에 급히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침착하게 행동하라. 길방:북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경계망동을 삼가 하라. 오늘은 영리한 두뇌와 수완으로 실력자를 움직여 엄청난 이득을 꾀하는 기운이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구설수가 있을 수 있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친구나 주변의 유혹 또는 호기심의 발동으로 인한 재물손실이나 가정불화가 있을 수 있다. 과음하지 말라. 이성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며 자신위주가 된다. 겸손 하라. 길방:동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또한 서류나 계약과도 관계가 있는데 매사를 서둘러서 실패할 수도 있다. 매사 꼼꼼히 살펴라. 길방:남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길방:남, 운세: 겉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격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초지일관한 자세가 중요하다.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피곤하고 고독한 날이지만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는 명예를 얻는다. 길방:북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거래상대가 이쪽을 의심하게 되니 잘 설득시킴이 중요하다. 재물이 빛을 보는 날이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사람의 덕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덕을 음식을 씹어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를 조심하라. 길방:서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 3, 7, 8, (1, 5)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토끼, 양, 돼지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쥐, 용, 원숭이

한국ABC 인증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1위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신지 않습니다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2 스포츠1부 02 2020 1041 스포츠2부 02 2020 1059	02 2020 1065 02 2020 1062 02 2020 1027 02 2020 1069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인쇄 동아일보사	02 2020 1062 02 2020 1069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